

在日韓人の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Information Pover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이 제 환(Jae-Whoan Lee)**

목 차

- | | |
|-----------------------|-------------------------|
| 1. 주류와 주변 그리고 정보빈곤 | 3.4 상대적 정보빈곤의 사례 |
| 2. 주변으로 방치된 그들: 재일한인 | 4. 재일한인의 정보빈곤: 유발 요인 |
| 3. 재일한인의 정보빈곤: 현황과 실태 | 4.1 내적 측면: 노력 부족과 편견 |
| 3.1 논의의 근거와 방식 | 4.2 외적 측면: 열악한 정보환경 |
| 3.2 정보빈곤은 실재하는가? | 4.3 열악한 정보환경의 속내 |
| 3.3 정보빈곤의 유형과 상대성 | 5. 재일한인의 '참' 정보화를 위한 제언 |

초 록

이 논문에서는 재일한인을 사례로 하여 소수민족의 정보빈곤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논의는 재일한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하는데, 논의의 근거로서 심층면담(24명)을 통해 수집한 질적 데이터와 설문조사(532명)를 통해 수집한 양적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논의는 재일한인이 일본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보빈곤의 실태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재일한인을 정보빈곤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내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논의의 초점을 재일한인 내부의 상대적 정보빈곤층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는데 두면서, 그러한 상대적 정보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nformation poverty issu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details, it introduces the substantial examples of information poverty which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have experienced in their daily lives, and analyzes the factors causing such information poverty. The focus is on identifying the 'relative' information-poor groups in the Korean community. Finally suggested is a strategic method to improve both the poor information literacy of Korean residents and the poor information environment of Korean community in Japan. The data needed for discussion were collected by two methods: a full-scale survey with 532 Korean residents and an in-depth interviews with 24 samples drawn from the survey participants.

키워드: 정보빈곤, 정보행태, 정보환경, 정보격차, 재일한인, 재일동포, 소수민족

Information Poverty,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Gap,

Information Environment, Korean Residents in Japan, Ethnic Minority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과제로 수행되었음. (KRF 2003-005-A00005)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an.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5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6월 16일

1. 主流와 周邊 그리고 정보빈곤

‘우리’와 ‘그들’의 二分構圖는 인간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름의 척도이다. 이러한 이분구도에는 상생의 긍정적인 면과 공멸의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근대화가 진행되고 자본과 권력의 구조화가 급속해지면서 전래의 이분구도는 인간사회를 분열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이데올로기의 측면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사회질서에서 이분구도는 ‘그들’을 일탈과 위협의 대상으로 각색함으로써 ‘우리’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적 권력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 ‘주류’이기를 고집하면서 가지지 못한 ‘그들’을 ‘주변’으로 소외시키고, 주변을 철저히 타자화하여 사회구성원의 이분구도적 경계를 구조화하려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도처에서 ‘주류’와 ‘주변’ 사이의 갈등과 반목,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해, 주류의 압제와 주변의 항거가 더욱 첨예한 양상으로 변져나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모습이다.

여기서 이러한 갈등과 반목 나아가 분열과 대립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소위 장밋빛 희망으로 포장된 정보사회의 도래이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인간의 사고와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더니,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구조와 질서 또한 급속히 바뀌어놓고 있다. 정보사회가 도래하면 기존의 신분과 계층 사이의 삶의 질에 있어서의 격차가 사라질 것이라던 미래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주류 집단과 주변 집단 사이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변 집단이 처해있는 열악한 정보환경과 가뜩이나 부족한 정보마인드는 그들의 정치경제적 빈곤을 사회문화적 소외로 구조화시키는 부작용으로 결과하고 있다.¹⁾ 이렇듯 ‘정보화’의 졸속적인 추진이 기본적인 삶의 유지에 긴요한 일상적 정보소스로부터 주변 집단의 소외를 오히려 부추기면서 그들의 빈곤을 만성화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인간사회의 주변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정보빈곤의 심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의 저변에는 정보사회의 순기능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복지의 실천을 통해서만 구현이 가능하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다. 이렇듯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주류 집단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그래서 주변인으

1) 정보빈곤층에 속하게 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주류 집단의 사회문화적 가치체계로부터 오래 동안 격리 혹은 배제되는 경험을 공유한다. 그러다 보니 그들 대부분은 주류 집단의 주요한 정보소스에 대해 차라리 무지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정보소스의 의미와 기능, 특히, 삶에 있어 주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정보소스가 갖는 가치와 비중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는 현상, 즉, ‘정보마인드’의 결여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더군다나 정보빈곤층에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환경의 열악함조차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체념적 성향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처해 있는 정보환경이 열악하면 정보요구는 생식단계에서부터 제한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정보추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이처럼 정보마인드의 취약함에 더해 정보환경의 열악함은 정보빈곤을 구조화하는 주요 원인이자 결과로 지목되고 있다. Childers, T. 1975. *The Information-poor in America*. Metuchen, NJ: Scarecrow; Schiller, H. 1996. *Information Inequality*. New York: Routledge; Wresch, W. 1996. *Disconnected: Haves and Have-nots in the information ag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로서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주변 집단'의 속내와 행태를 '일상'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들을 빈곤의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는 묘책을 '정보복지적 측면'에서 찾아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²⁾ 단지, 그러한 목적을 향해 조금은 '느릿한 걸음'으로 접근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우회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내는 작업은 일단 뒤로 미루고, '그들' 중에 놓여 있으면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또 하나의 '우리를 찾아내어 정보빈곤의 실체를 파헤쳐보자는 전략이다. 그래서 선택한 대상이 '해외 이주 한인 집단'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적으로나 정치경제적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일본 거주 한인 집단(이하 재일한인)'에 주목하였다.

2. '주변'으로 방치된 그들: 在日韓人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이다. 반만년이 넘게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에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 근래에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공과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온 선민의식이 합쳐지면서, 우리의 민족주의는 과열을 염려할 정도로 한껏 부풀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단일과 '선민' 의식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민족적 관점에서 '우리'와 '그들(타민족)'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들을 우리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배타적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너무 짙게 퍼져있다는데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나 심지어 탈북자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에는 그들을 향한 거부감과 멸시감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차별과 냉대도 모자라 학대와 착취가 공공연히 자행되기도 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우리의 매스컴을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의 우리가 눈에 쌍심지를 들고 입에 거품을 물며 비난하는 이웃이 있다. 바로 일본이다. 우리는 '주변' 국가에 대한 일본의 배타성과 침략성을 몰아세우며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이나 제국주의적 행태가 돌출될 때마다 전국민이 들고일어나 '타도 일본'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영토에서 1세기 가까이 '악전고투' 해 온 '우리의 피붙이(재일한인)'에 대해서는 지나치

2) 우리 사회보다 한발 앞서 정보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서구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주변사회, 특히 소외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행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기에는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집단 혹은 소수민족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인프라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열악한 정보환경으로 인해 빈곤층이나 소수민족의 정보행태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변화하고 그러한 소극성과 수동성이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왔다. 특히 근자에 들어서는 정보복지의 관점에서 빈곤층이나 소수민족집단의 정보빈곤 문제를 그들의 삶의 질과 연계하여 조명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주류 사회와 주변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불평등 현상이 이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총체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정보불평등의 해소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보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환·이연욱·장덕현 2004,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73-295.

리라 만큼 무관심하다. 우리는 재일한인의 삶은 고사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입에 올리려 하지 않는다. 마치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상흔인양 애써 그들의 존재를 외면한다.³⁾ 우리 못지않게 단일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어 있는 일본에서 주류 사회로의 '동화와 편입'을 거부하고 '異 민족성'을 유지하며 버티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⁴⁾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화를 강제하는 일본정부의 재일한인 정책을 일부 인권단체의 입을 빌어 비난할지언정 정부나 국민이 나서서 재일한인을 '우리의 일부'로 끌어안고자하는 노력에는 차라리 인색하다.

이렇듯 우리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세기가 넘게 외면해온 '일본에 사는 우리의 혈육'이 2006년 현재 약 60여만을 헤아린다. 그

들 중 70%에 이르는 약 42만명은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강제적으로 혹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현해탄을 건너갔다가 해방이후에도 경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영주하게 된 '조선인'과 그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1980년대 이후 주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일본으로 이주하여 영주를 모색하고 있는 신진 이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⁵⁾ 이렇듯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재일한인'은 크게 두 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올드커머라고 불리는 첫 번째 집단이 민족적 정체성을 금과옥조로 삼아온 그러다보니 주류 사회로부터의 각종 차별과 홀대를 일상적으로 안고 살아야 했던 '주변화'된 소수민족의 전형인 데 비하여, 뉴커머라고 불리는 두 번째 집단은 민

3) 재일한인이, 근자에 해외로 이주한 다른 한인 집단들과는 달리, 이주국 보다는 모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도처에 널려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주류 집단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편만한 삶을 거부하고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주변인이기에 받아야 하는 온갖 차별과 홀대를 견디어 온 그들 하나하나의 굴곡의 생애사가 그러한 실상을 보여준다. 어디 그 뿐이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게 모은 재산을 모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재일한인이었다. 남북한을 막론하고 재일한인의 재정적 지원이 경제발전에 커다란 동력이었음은 1960~70년대의 역사가 입증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국지향적 삶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모국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은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정치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남북정권의 사주와 조정에 따라 동서로 갈라져 분열하였고 반세기가 넘도록 이진투구의 갈등과 반목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주류 사회로부터는 물론이고 모국 사회로부터도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姜在彥·金東勳, 2003, 『在日 韓國·朝鮮人-歴史と展望』 昭和.

4) 주지하다시피 재일한인과는 달리 미국이나 호주 등지로 이주한 한인 집단들 사이에서는 조속히 주류 사회의 시민이 되는 자격(시민권)을 얻고 주류 사회에 깊숙이 진출하여 개인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 최대의 인생 목표가 되어 있다. 모국 사회에서 또한 그러한 개인지향적인 한인들이 이주 사회에서 이런 개인적인 성공에 대해 칭송과 부러움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재일한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한일 간의 불행했던 역사적 상흔이 너무도 짙게 남아 있었기에 재일한인의 일본인으로서의 귀화는 모국 사회는 물론이고 재일한인사회 내부에서조차 '쉬쉬해야 할' 부끄럽고 심지어는 '배반적인' 행위로 오래 동안 간주되어 왔다. 신숙옥, 2000, 『재일조선인의 가슴속』 서울: 십년후.

5) 일본 현지의 한인사회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일본에 새롭게 거주하기 시작한 한인 집단을 해방 이전부터 이미 거주해 온 한인 집단(old comer)과 구별하여 뉴커머(new comer)라고 호칭하고 있다. 이들 뉴커머는 198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현재 그 규모가 약 18만 명에 이르며 주로 동경과 오사카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자료(<http://www.mindan.prg.kr/shokai07.htm>)에 의하면 동경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2004년 현재 100,87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지만 영주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수 만명의 뉴커머가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영주를 모색하고 있는 한인의 전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족적 정체성이나 인종차별 등으로 인한 피해의 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개인주의적 삶'을 지향하는 신세대 이주자 집단이라는 뚜렷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재일한인은 동질의 성향을 지닌 단일 집단이 결코 아니다. 移住의 역사와 동기는 물론이고 '이주자로서의 삶'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에 있어서도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가진 이질적인 소집단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⁶⁾ 이러한 재일한인사회의 성향과 관련하여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모국지향적인 성향이 지배적이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응집력을 지니고 있던 재일한인사회가 1990년대 중반이후 급속한 이완의 조짐을 보여 오고 있다는 점이다.⁷⁾ 특히, 세대가 거듭될수록 귀화지향적 혹은 개인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재일한인사회에 확산되고 있으며, 모국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몸도 마음도 온전히 일본인

이 되기를 바라는 젊은 한인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⁸⁾ 그 결과, 1세기 가까이 '일본 내 최대의 소수민족집단'으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해오던 재일한인사회가 본격적인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⁹⁾

사실,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부담만 떨쳐버린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가치와 질서 속에서 개인지향적 혹은 귀화지향적 삶의 추구를 타할 근거도 이유도 없다. 특히, 좁디좁은 한반도의 남쪽에 등지를 틀고 앉아 주류 집단을 자처하는 우리조차 행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의해서는 물론이고 일본에 의해서도 주변으로 밀려나있는 한 줍밖에 되지 않는 '강제 이주자 집단'에게 강요할 자격도 명분도 우리에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한인이 모국에 대한 애착심을 처음처럼 유지하면서 모국지향적 삶을 살아주기를 우리는 은근히 바라고 있다. 일본 주류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홀대 그리고 핍박을

6) 특히,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관점을 놓고서도 재일한인은 최소한 네 개의 이질적인 소집단으로 나뉘어 진다. 재일한인의 정체성에 대해 오래 동안 연구해온 福岡安則의 견해에 따르면, 재일한인의 정체성은 祖國에 대한 중시도와 日本에 대한 일체감의 정도에 따라 공생지향(조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면서 동시에 일본에 대한 일체감도 중요시 하는), 귀화지향(일본에 대한 일체감은 강하면서 조국에 대한 애착심은 약한), 조국지향(조국에 대한 애착심은 강하면서 일본에 대한 일체감은 약한), 그리고 개인지향(조국에 대한 애착심도 일본에 대한 일체감도 약한 상태에서 개인의 입지와 성취를 중시하는) 등으로 나뉘어 진다. 福岡安則, 1993, 『在日韓國・朝鮮人: 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公新書.

7) 일본사회로부터는 물론이고 모국사회로부터도 '애물단지' 취급을 당해온 재일한인, 특히, 모국지향적 한인들 사이에서는 반세기에 걸친 모국에 대한 '짜사랑'을 그만 끝내고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구 노력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재일한인 2-4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젊은 리더들은 분단 조국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정체성을 추구하지는 기치 아래 '재일코리아' 혹은 '在日'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일본 주류 사회와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면서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려는 삶의 태도(공존지향적)를 지향하고 있다. 姜尙中, 2004, 『在日』, 講談社; 朴鐵民 編, 2004, 『在日を生きる思想』, 東方出版.

8) 구체적으로,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재일한인의 숫자는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급속히 늘어 매년 1만 명을 넘고 있으며, 특히, 재일한인의 결혼상대로 일본인이 80%에 이를 정도로 재일한인의 주류 사회로의 동화는 속도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関寛植, 1994, 『在日韓國人の現状と未来』, 百帝社.

9)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적 증감을 감안하고서도 해방직후 60여만 명을 헤아리던 올드커머가 2002년 현재 40여만 명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姜在彦・金東勳, 2003, 『在日韓國・朝鮮人-歴史と展望』, 昭和.

‘순교자의 마음과 자세’로 버티어 내기를 은연 중에 강제하면서 말이다. 한일간에 걸끄러운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외교적 장애물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재일한인을 ‘애물단지’처럼 취급해 오던 우리 사회이다. 그런 우리 사회가 그들이 ‘우리의 결가지’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으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한 우리의 몰염치한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래서 비록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우리가 버려두었던 그리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 했던 재일한인사회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속내를 들여다보고 싶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고단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일을 하고 싶었다. 문헌정보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일개 서생의 입장에서 그들의 일상적 삶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기로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찾아낸 것이 그들의 일상적 삶을 ‘정보행태적 관점’에서 조사하고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¹⁰⁾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변화된 소수민족으로서 재일한인의 삶이 정치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문화적으로 빈곤한 처지에 몰려있는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러한 빈곤이 야기하는, 동시에 그러한 빈곤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보의 빈곤’에서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3. 재일한인의 정보빈곤: 현황과 실태

‘정보빈곤’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어버린 정보사회에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혹은 집단)가 처하게 되는 사회 중심부로부터의 소외 혹은 주변화 현상이다. 이 연구에서 ‘정보빈곤’은 “일상적 삶에 있어 정보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소스의 존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지하며, 그러한 일상적 정보소스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구대상인 재일한인은 실제로 그러한 정보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가? 이제부터의 우리의 논의는 재일한인이 처해있는 정보빈곤의 현황과 실태를 파헤치는데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재일한인은 실생활에서 정보의 결핍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 만약 느끼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의 결핍으로 인해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재일한인으로 하여금 정보의 빈곤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하나하나씩 논의하고자 한다.

10) 우리 연구팀은 학술진흥재단의 도움을 받아 2003년 10월부터〈재일한인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 현상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2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밝혀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학술지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제환, 정수원, 송정숙, 2004, 일상적 고민을 통해 본 재일한인의 삶, 『한국민족문화』, 23: 149-186; 이제환, 장덕현, 이연옥, 2004, 在日韓人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關西 지역 거주 한인들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22-248; 이제환, 2005, 동경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오사카 지역 한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91-116; 이제환, 이연옥, 2005,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26: 357-384; 이제환, 노지현, 2005,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45-76; 정수원, 2005, 在日韓人 문학작품을 통해 본 在日韓人의 일상적 고민과 대처방법, 『일어일문학』, 29: 245-263. ‘재일한인의 정보빈곤’을 주제로 한 이번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3.1 논의의 근거와 방식

지금부터의 논의는 우리 연구팀이 2005년 2월과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재일한인사회를 방문하여 벌인 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방문조사의 목적은 재일한인의 정보빈곤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환경에 관한 원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었다. 첫 번째 방문조사에서는 정보빈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재일한인의 밀집 지역으로 파악한 5개현(동경, 오사카, 효고, 아이치, 교토)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100여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532부를 회수하였다. 두 번째 방문조사에서는 재일한인의 양대 거주지역인 오사카와 동경 일대를 방문하여 정보빈곤의 실증적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대상자는 설문조사에 참가한 한인들 중에서 이주 시기와 동기(올드커머/뉴커머), 삶의 유형(공생지향/조국지향/귀화지향/개인지향), 인구학적 변수(성별/연령/학력/직업/국적) 등을 고려하여 24명을 선별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에 걸쳐 심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원시 자료의 수집 방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한 자료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빈곤의 양상과 실태에 대한 논의는 면담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정보빈곤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정보행태와 정보환경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설문을

통해 수집한 양적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논의의 전개를 위해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질적 연구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즉, 주요 논점의 전개는 대부분 면담을 통해 녹취한 구술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설문을 통해 얻은 통계자료는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2 정보빈곤은 실재하는가?

이 연구에 앞서 수행한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우리 연구팀은 재일한인이 겪고 있는 일상적 고민의 유형과 실체를 몇 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 있었다. 우리는 재일한인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고민을 그들 내부에 잠재해 있는 정보요구와 연계하여 해석해 보고자 시도하였으며, 그들의 정보추구 행태를 조사하면서 그들의 다수가 일상적 삶의 유지에 긴요한 정보소스에 대해 무지하거나 접근 및 이용에 장애를 안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와 판단을 돌아보면서 우리 연구팀은 혹시 우리의 견해가 우리의 주관적 관점을 과도하게 반영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가령, 우리 연구팀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재일한인의 다수가 일상적 정보의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였지만, 재일한인의 눈높이에서 볼 때 그들이 겪고 있는 '일상적 어려움'은 정보의 결핍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지도 몰랐다. 이에 새롭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다: “평소 생활하시면서 일상적 대소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에 참가한 한인들의 응답은 앞서 언급한 일련의 연구에서 우리 연구팀이 내렸던 해석이 과도하게 주관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질의에 응답한 한인의 약 52%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적어도 재일한인의 과반수 이상이 일상생활에 있어 정보의 결핍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진단은 이어진 면담조사의 결과를 통해 사실로 입증되었다. 면담과정에서 우리의 관심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나머지 47%에 집중되었다.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대답을 하게끔 만든 배경이 궁금하였기 때문이었다. 면담에 참여한 24명 중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11명이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들 중 6명은 그들이 경험했던 손실이 ‘정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러한 대답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실생활에 있어서의 정보의 결핍 못지않게 ‘정보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의 결핍’ 또한 재일한인이 당면해 있는 주요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재일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정보의 빈곤 현상은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개인적 변수에 따라 흥미로운 차이를 보였다. 가령, 남성이 여성에 비해, 30~50대의 중장년층이 20대 이하의 청년층이나 60대 이상의 노인층에 비

해,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중졸이하의 저학력자에 비해, 일용직이나 잡급직 종사자가 전문직이나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일본에서의 거주연한이 짧고 체류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할수록, 일본에서 출생한 2세 이상에서보다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일본으로 이주한 1세들에게서, 그리고 올드커머 중심의 오사카지역보다는 뉴커머 중심의 동경지역에서 ‘일상적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듯 인구학적 변수와 체류자격 그리고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재일한인 집단 내부에서도 구성원들이 느끼는 정보빈곤의 정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그들이 부족을 느끼는 정보의 내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일한인이 일상적 대소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부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것이었다. 생계와 직결되는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손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경제활동 관련 정보의 빈곤 현상은 일본에서의 정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뉴커머 집단과 ‘조선’ 국적의 올드커머 집단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어서 자녀의 교육이나 노후의 복지 그리고 건강 문제 등과 같이 이주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는데, 육아와 교육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청장년층의 뉴커머 집단에서, 그리고 노후복지나 건강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1세 중심의 노인층에서

특히 부각되었다. 한편 이들에 비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2-4세 중심의 초기 이주자 집단에서는 사회참여나 정체성 혹은 자아실현 등과 같이 물질적 차원을 넘어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3.3 정보빈곤의 유형과 상대성

이러한 일상적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재일한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감내하여야 했는지는 설문조사에 이은 심층면담의 과정을 통해 상세히 밝혀낼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연구팀은 먼저 재일한인 중에서도 '정보에 대한 인지능력과 활용능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소집단'을 구별해 내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팀이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대소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이해와 활용에 있어 선생님의 능력은 다른 교포나 일본인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문맥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질문의 목적은 재일한인이 느끼는 상대적 정보빈곤의 정도를 파악하되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소집단별로 차이를 구체적으로 도출해 내고, 그로부터 최종적으로 정보빈곤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소집단을 식별해 내는데 있었다.

조사결과를 흥미로웠다. 먼저, 자신의 정보 활용능력이 다른 한인에 비해 '앞선다'는 응답자(31%)가 '뒤진다'는 응답자(20%)보다 월등히 많았다. 인구학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안

정적일수록,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리고 체류신분이 안정적일수록, 자신의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일본인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뒤진다'는 응답자(31%)가 '앞선다'는 응답자(25%)보다 많았는데, 이처럼 설문에 응답한 한인들에게서는 자신의 정보활용능력이 다른 한인에 비해서는 앞서지만 일본인에 비해서는 뒤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적인 소집단들도 있었다. 가령, 10-20대의 젊은층과 전문직이나 사무직과 같은 안정적 직업의 종사자 그리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3세 이상의 젊은층에서는 자신들의 정보활용능력이 일본인에 비해서조차 앞서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배어 나왔다.

그러나 우리 연구팀의 관심은 '자신감'에 차 있는 이들 집단 보다는 일본인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한인에 비해서도 자신들의 정보활용능력이 뒤쳐진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빈곤층'을 파악하는데 있었다. 정보의 부족을 느끼면서도 정보활용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재일한인 집단 내에서 정보의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 가장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온 '정보빈곤층'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일단의 무리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재유연한의 측면에서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한인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가령, 그들 무리에는 문자해독능력이 떨어지고 경제적 자급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고령자가 많았으며, 재유연한이 짧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본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

지는 뉴커머가 빈번히 눈에 띠었다. 그들 무리에는 또한 일본사회에 대한 일체감보다는 조국에 대한 애착심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민족정체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인 2-4세의 모습이 섞여 있었다.

우리 연구팀은 이제 그들 무리가 안고 있는 정보빈곤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나선 대상은 재일한인사회 내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인 1-2세 고령자들이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주류 사회로부터의 공식적인 재정 혹은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절차와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었다. 그러나 면담을 위해 만난 거의 모든 노인들은 그러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무지한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일러주는 '정보소스'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스를 제대로 활용할만한 능력을 그들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¹¹⁾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노인들은 몸을 의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의 관계자에게 중앙이나 지방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내는 문제 등을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이나 단체들 또한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재정과 인력에서 영세하다보니 주류 사회의 정보를 제대로 찾아내어 활용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영세한 한인 고령자들의 정보빈곤은 구조적이며 만성적인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 연구팀은 전체 재일한인의 약 30%에 이르는 뉴커머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빈곤의 구체적인 징후를 찾아 나섰다.¹²⁾ 우리는 특히 재유연한이 짧은 뉴커머들에게 주목하였는데, 그들은 거주할 집을 구하고,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를 찾고, 생계와 안정을 위한 직업이

11) 영세 노인들 중에는 문자해독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 이러한 실정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에 신문을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응답자(532명 중에서 75명)의 15.9%가 '읽을 줄 몰라서'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응답을 한 한인의 대부분은 고령의 1세였다. 면담조사를 통해 우리는 고령의 한인 1세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일어난 물론이고 기본적인 한국어의 해독능력조차 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 주지하다시피 신진 이주자로 구성된 뉴커머 집단에게는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여야 하는 그들만의 과제로 인한 고뇌와 번민이 늘 따라다닌다. 재일한인사회의 뉴커머 집단에서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모국을 떠난 '이주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사회행태적 특성이 고루 발견된다. 가령, 생존을 위한 터잡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류 집단과의 갈등과 마찰에서부터 주류 집단의 이질적인 가치체계와 문화적 행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뇌와 번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를 극복해 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태가 관찰된다. 그러나 다른 이주자 집단과는 달리 일본으로 이주하는 한인 뉴커머들은 두 개의 이질적인 주류 사회와 마주하게 된다. 현해탄을 건너온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일본인의 주류 사회에 더해 올드커머 중심의 한인사회가 하나 더 보태진다. 문제는 이주의 계기는 물론이고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차이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만큼 벌어져 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올드커머 집단이 과거의 역사적 피해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주류 사회와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행태를 보인다면(물론 개인적 성향에 따라 일본사회 깊숙이 숨어드는 귀화자가 늘고는 있지만), 뉴커머 집단은 민족정체성 등의 이념적 문제보다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개인적 성공에 관심이 많다보니(물론 개인적 성향에 따라 모국지향적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 주류 사회로의 동화에 대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우리 연구팀의 조사과정에서 뉴커머 집단 중에서도 초기 이주자들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귀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더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의 사회문화에 이미 익숙해 있는 올드커머들의 입장에서 볼

나 사업을 찾고, 건강의 관리와 노후의 대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체류신분의 안정을 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절차와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 숙지하여야 하는 부담을 늘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이 주류 사회의 언어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본인 주류 사회는 물론이고 올드커머 집단의 주요 정보소스에 대해서 무지하며(설령, 알고 있다하더라도 적극적인 활용을 주저하며), 특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뿔뿔이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다보니 필요한 정보를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개인적 친분에 의존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비공식 기관(혹은 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농후하였으며, 그렇게 얻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¹³⁾ 이처럼 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뉴커머 집단의 정보빈곤 또한 일시적 현상이 아

니라 구조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우리 연구팀이 '상대적 정보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한 마지막 무리는 모국지향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일본에서 태어난 2-4세 중심의 한인, 특히 '조선' 국적을 갖고 있는 총련계의 한인들이었다.¹⁴⁾ 일본 주류 사회에 동화되거나 공생 혹은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한인들과는 달리 이 무리에 속하는 일단의 한인들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고민은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재일한인 사이에 민족적 뿌리에 대한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고 모국의 언어와 관습이 잊혀져 가면서 급기야 귀화가 확산되어 가는 현실을 목시도 안타까워하면서 '민족의 흔적'을 유지해가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인간 힘을 쓰는 전형적인 모국지향적 한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해야 한다'는 의무에 비해 막상 일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재원도 정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특히, 그들이 속해있는 소

때 일본에 이주해 와서도 한국의 부정적 행태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뉴커머들의 존재는 결코 달갑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1980년대 이후의 초기 한인이주자들의 상당수가 하급직이나 유흥직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해탄을 건너왔고 오늘날까지도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일부 뉴커머들은 동경이나 오사카 등지의 대도시에서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듯 재일한인사회 내에서도 주류 집단(올드커머)과 주변 집단(뉴커머)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게 상존하고 있다.

- 13) 뉴커머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정보추구행태의 특성은, 사회경제적 소외 집단들을 대상으로 정보빈곤 현상을 연구해온 Chatman이 소외 집단의 정보빈곤을 유발하는 원인이라 정보빈곤 집단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으로 지목한 네 가지 요소와 여러 면에서 유사함을 느끼게 한다. 즉 재일한인의 뉴커머 집단에서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낸 일상적 정보를 공개하기보다는 감추고자 하는 경향(secretcy)이 짙게 느껴졌고, 심지어 자신의 문제 해결에 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deception) 행태 또한 종종 목도되었다.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외부(outsiders)의 정보소스는 좀처럼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즉,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는, risk-taking) 모습이 자주 노정되었으며, 특히, 당면해 있는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즉, situational relevance가 낮은) 정보소스의 활용을 기피하는 행태가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Chatman, E. 1996, "The Impoverished Life-World of Outsid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7: 193-206.
- 14) 면담조사의 과정에서 만난 총련 소속의 한인 2-4세대들은 대부분이 제도권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이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재일한인사회의 주류 집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속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조국' 란에 '조선'을 국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총련의 회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북한에 대한 사상적·체제적 동조감은 벌써 열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代부터 이어오던 '조선'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기에는 심리적 거부감이 잔존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수민족사회(재일한인사회)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객관적인 정보조차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보니 그들의 노력은 좀처럼 결실로 맺어지지 못하고 있었다.¹⁵⁾ 이러한 그들이 처해 있는 정보빈곤은 재일한인사회의 존속과 연계된 가장 심각한 '빈곤'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3.4 상대적 정보빈곤의 사례

우리 연구팀은 이상에서 언급한 세 유형의 소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빈곤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표본을 찾는 작업에 돌입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작업을 위해 24명의 한인을 선정하고 각각 2시간여에 걸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서는 그들 24명 중에서 소수민족의 일원으로서 일상적 삶을 영

위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이 유난히 컸던 한인을 소집단별로 1명씩 모두 3명을 선별하여 그들의 쓰라렸던 경험을 파란만장한 인생이력에 곁들여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¹⁶⁾

(1) 정보가 아니라 '사람'이 아쉬웠던 1.5세: 미찌코¹⁷⁾

만 82세. 한국 국적의 '특별영주권' 소유자. 제주도가 고향이고 4살 때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왔다. 오사카의 외곽에 있는 조선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자랐고 11살부터 단무지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19세가 되던 해에 조선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자식은 2남 1녀를 두었다. 막내를 낳을 즈음에 조선이 해방되었지만 돌아가도 뾰족한 수가 없어 그냥 일본에 남았다. 그러나 그때부터의 생활은 오히려 해방 전만도

15) 그들이 설립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이 영세하여 시설과 집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소위 정보화 시대에 그들의 사무실에는 변변한 정보기기 하나 제대로 없었고,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할 만한 능력을 갖춘 인력은 좀처럼 눈에 띄이지 않았다. 그렇듯 빈한한 실정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가 연계하여 공동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좀처럼 못하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빈곤의 딱지가 찢드기처럼 굳어있는 곳에서 동포를 위한다고 나선 그들이 오히려 '정보빈곤'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었다.

16) 여기서의 이야기는 그들 세 사람과 그들의 생애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했던 내용에 기초한다. 면담은 그들의 생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들의 생애에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얻은 구술자료에 근거하여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정보의 빈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의 결핍으로 인해 (비록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정보의 결핍으로 인한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심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 가감 없이 기술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세 사람의 이름은 '정보출처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假名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7) 우리 연구팀이 미찌코를 만난 곳은 오사카 외곽 지역에 위치한 <사랑방>이라는 이름의 복지시설이었다. <사랑방>은 일본사회의 고령자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한 한인 1세 할머니를 위한 복지시설이었다. 비록 주류 사회의 양로 복지시설에 비해 규모는 영세하고 시설은 빈약하였지만 <사랑방>은 한인 1세 할머니들의 쉼터와 배움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랑방>은 한편으로는 한인고령자의 복지문제에 대해 일본 복지기관 및 운동단체 등과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인고령자를 위해 역사,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강좌나 영화 등을 자체적으로 상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다. 처음에 미찌코는 낯선 이들의 방문에 다소 놀란 듯 두 눈만 깜빡거렸다. 인뿔 보아도 우매보시보다는 김치 냄새가 짙게 배어 있는 전형적인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사라지자 그녀는 곧바로 우리 연구원의 손을 어루만지며 친근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3시간동안 그녀의 따뜻한 손에 우리의 마음을 맡긴 채 우리는 현해탄을 몇 번이고 넘나들면서 그녀의 과거로 여행을 떠났다.

못하였다. 경제적으로 곤궁함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센징이기에 너무나도 심한 억압과 차별을 당해야 했다. 남편은 어느 정도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식들만큼은 조센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서 결국 세 아이 모두 일본 학교를 보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거의 일본인이 되어버린 아이들과 남편은 갈등이 매우 심했다. 결국 일본인과 결혼한 아이들은 귀화의 길을 택해 그들 부부에게서 멀어졌고 남편은 합병에 지병이 겹쳐 일찍 세상을 떠났다. 미찌코는 그녀가 성장했던 오사카의 조선인 빈민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의 보조금과 복지단체의 지원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미찌코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 글자를 배우지 못해 까막눈으로 살아온 것과 자식들을 너무 어려서부터 일본학교에 보내 결국은 일본인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먹고살기에 바쁘다 보니 글을 배울 기회를 놓쳤지만 일상사는 그래도 까막눈은 면한 남편이 알아서 처리하였기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5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가 문제였다. 글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니 무엇 하나 혼자서 처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불러 도움을 청하였지만 아이들도 그들 살기에 바쁜 눈치였다. '그만 세상을 떠날까'하는 생각이 골백번 들었지만 모진 목숨을 끊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고, 그 사람이 도와주어서 한인 복지시설을 접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달라졌다. 복지시설의 도움으로 정부

로부터 생활보조금도 받게 되었고, 낮에는 복지시설에 와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다.

미찌코의 말대로 그녀는 인생 말년에 뜻하지 않은 행운을 잡은 것이었다. 미찌코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한인1세 노인이 일본 전역에 수천을 헤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다. 차라리 귀화를 하여 일본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쩔 수없이 '특별영주권자'로 남아 있으면서 <사랑방>과 같은 한인 복지시설의 회원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영세한 한인1세 노인들의 공통된 희망이었다. 문제는 <사랑방>과 같은 데이케어센터조차 재일한인사회에서는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영세한 한인1세 노인들은 사회적으로도 단절되어 있다보니 그러한 '도움의 길'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설령 '도움의 길'이 있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른 경우가 허다하였다. 거리에서 우연히 옛날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미찌코는 정말이지 '죽은 남편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은 것인지 모른다. 이렇듯 미찌코가 얻었던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2) 아이를 위해 자신의 꿈은 포기한 뉴커머: 황문식¹⁸⁾

만 45세. 이주 경력 15년 차의 뉴커머. 1989년에 어학 연수차 일본에 왔다가 지금의 아내(재일한인 3세)를 만나 결혼을 하고 일본에 영

18) 우리 연구팀이 황선생을 면담한 곳은 오사카의 쓰루하시에 위치한 한인상가 내의 조그마한 식당이었다. 일상의

구히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체류신분이 안정적이 않아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나 일본 거주 14년 만에 마침내 영주권을 받아서 지금은 여러모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 언어(일본어)가 서툴던 정착 초기에는 일용 잡급직에서부터 가판원에 이르기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으나 언어가 능숙해지면서 여기저기 보다 나은 직장을 수소문할 수 있었고, 한인(올드커머)이 운영하는 소규모 무역회사 등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영주권을 받은 후 현재의 직장(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오사카 지점)에 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현지 직원 채용 케이스로) 생활에 안정을 찾았다. 이렇듯 언어에 더해 영주권은 황선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영주권을 얻기 전까지의 삶이 '생계와 생존을 위한 버티기'였다면 영주권을 받은 이후의 삶은 '안정과 성취를 위한 뚝배기'로 대별될 정도로 삶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컸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 올해로 만 3년이 되었다. 지금은 오사카 외곽에 위치한 중산층 거주 지역에 주택도 구입하는 등, 급속히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 가고 있다.

지금은 '화려한 옛 추억'이 되어 버렸지만 일본어와 일본 비즈니스에 익숙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회사를 차리는 것이 황선생의 젊은 시절 꿈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결혼을 하게 되고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결국 그는 귀국의 꿈을 접

고 말았다. 물론 재일교포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귀국을 미룬 것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아이들이 그의 삶에 중심에 있었다. 처음에는 '한국보다는 일본의 교육환경이 아이들에게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귀국을 뒤로 미루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크면서 결국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일본식 교육과 문화에 어느 덧 익숙해진 아이들이 한국의 교육과 문화에 적응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커져갔기 때문이다. 올해로 15살이 된 딸과 14살이 된 아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그의 머리는 온통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있다. 뚜렷한 해답이 없는 만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하루 이틀 늘어만 간다.

답답한 마음에 누구라도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막상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나눌 대상이 없다. 직장 동료나 이웃을 통해 간혹 관련 정보를 귀동냥하기도 하지만 왠지 미덥지 않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린다. 전문가나 전문가관을 찾아가 상담이라도 하고 싶지만 누가 누군지 알도리가 없고, 어찌하다가 그런 소스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결국은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에 찾아 나서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다가 결국 오랜 고민 끝에 금년 초부터 두 아이 모두 총련계의 민족학교에 보내고 있다.¹⁹⁾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 단

피로에 젖어있는 황선생의 외모에서는 타향살이에 지친 디아스포라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처음에는 다소 서먹해 하더니 소주잔이 몇 번인가 돌자 그는 금방 40대 중반의 마음 좋은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은 얼마든지 망가져도 좋은, 그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였다.

지, 자신은 한국인이고 아이들도 한국인이니까 어차피 민족적 정체성만은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²⁰⁾ 그러나 아이들의 불평이 대단하다. 하긴 교육시설도 열악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에도 차이가 심하니 어찌 적응이 쉽겠는가? 그러다가 문득 “아이들의 삶은 어차피 그들의 몫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삶의 터전을 일본으로 삼고자 한다면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절실할 지도 모른다. 어찌 할거냐? 오늘 밤도 황선생의 고민은 지속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그의 주변은 너무도 쓸쓸하다.

(3) ‘동포를 위한 열정으로 사는 조선 국적의 한인: 김청자

만 51세. ‘조선’ 국적의 특별영주권 소유자. 일본에서 태어나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일본 학교를 다녔던 한인 2세. 현재 동경 지역에서 소수민족여성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국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시도하다가 주류 사회의 차별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청년동맹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청년동맹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였고 슬하에 중학교 3학년과 소학교 6학년인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아이들은 모두 민족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치고 나

면 아이들을 한국에 유학 보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일본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김청자의 생각은 확고하다. 한인이니까 한인으로서 살아야 하며 당연히 그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설상 본인이 겪었던 것 이상의 차별과 홀대를 일본사회로부터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청자는 주장한다. 재일한인 2-4세의 경우 특히 귀화한 한인들의 경우 자신이 속한 일본 사회에 한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불안감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많다. 특히 주류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 나름대로 개인적인 성공을 거둔 한인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제법 된다. 사실 일본사회에서 살면서 인종차별을 느끼는 것은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봉착하는 것보다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한 것이 더욱 크다. 그러한 심리적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구이며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혼동과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면 자신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어도 부모나 조부모 세대의 쓰라렸던 차별 경험이 자신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위축되

19) 모국의 가족과 친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대하는 직장 동료들이 한국말을 모르는 교포2-4 세들을 싸잡아 욕하는 장면을 자주 접하고 나서부터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키지 못한 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졌다. 그래서 우선은 한국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보내자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20) 아니 보다 솔직히 말해, 유치원부터 일본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어느 날 문득 일본인으로 자라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이질감에 몹시도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그러한 결정의 이면에 있었다.

어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김청자는 다시 주장한다. 과거의 자신 그리고 현재의 '우리'를 과감히 넘어서려면 자신과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부터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운동가' 김청자의 주변에는 재일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활용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모국(남이든 북이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설명해 주고, 재일한인의 뿌리와 역사 그리고 실태를 가감 없이 드러내 보여 줄만한 자료가 좀처럼 없다. 무엇보다도 향후 재일한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인 2, 3, 4세를 교육하는데 활용할 만한 '균형 잡힌' 그런 자료가 없다. 남이나 북으로 치우쳐 있고 동서로 갈라져 있는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쪽짜리 자료는 도처에 널려 있지만 말이다.²¹⁾ 여기에서 김청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편향된 주장과 왜곡된 행태를 온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새로이 만들어 내기에는 김청자와 그녀가 속해 있는 단체가 너무도 무력하다. 재정적인 면은 물론이고 전문 인력의 측면에서도 말이다. 어찌 할거냐! 여기저기 관련 자료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자료의 소재조차 제대로 모르니 활동은 해야겠는데 '정보의 빈곤'으로 인한 무력감은 나날이 심해져 간다.

4. 재일한인의 정보빈곤: 유발 요인

위에 인용한 세 사람의 이야기는 재일한인이 겪고 있는 정보빈곤의 원형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듯 정보의 빈곤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반추하다 보면 우리는 그들이 겪고 있는 정보의 빈곤이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가령, 미찌꼬의 정보빈곤이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과 정보소스에 대한 인지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면,²²⁾ 황문식의 정보빈곤은 정보소스에 대한 무지에 더해 정보소스를 찾아서 활용하려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김청자의 정보빈곤은 그녀의 의지와 노력의 부족 보다는 그녀를 둘러싼 정보환경(여기서는 정보인프라, 구체적으로, 네트워크에 기반한 커뮤니티 정보의 공유시스템)의 열악함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일한인을 정보의 빈곤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재일한인은 스스로 그들을 '일상적 정보의 빈곤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그들의 속내에 접근해 보자.

21) 솔직히 이것은 우리 연구팀의 관점이다. 김청자는 막상 그러한 자료가 얼마나 되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단지 그녀의 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관계를 맺고있는 주변의 사람이나 단체를 통해 그러한 자료의 일부를 접하고 업무에 활용할 뿐이다.

22)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미찌꼬가 처해있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가 그녀를 정보의 빈곤 상태에 처하게 만든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여기서는 자제한다.

4.1 내적 측면: 노력 부족과 편견

흥미롭게도 설문조사에 참가한 재일한인은 그들이 '정보의 빈곤'에 처하게 되는 일차적인 책임을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설문조사에 응했던 한인의 67%는 일상적 정보의 부족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대답이 결코 겸양의 표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보여준 일상적 정보소스에 대한 선호도와 이용행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그들에게 있어 일상적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소스는 신문과 잡지 그리고 TV와 같은 대중매체였으나²³⁾, 막상 그러한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에서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내용은 정치와 사회 관련 기사 그리고 취미와 오락 관련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었다.²⁴⁾ 이에 비해, 그들의 일상적 고민과 연계되는(즉, 그들 스스로 정보의 부족을 느낀다고 밝힌) 경제활동이나 사회적응 그리고 안정적 삶의 추구에 필요한 기사나 프로그램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드러내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비록 대중매체만큼 일상적 정보소스로서의 선호도는 낮았지만 실질적인 유용성에 있어서만큼은 이용 경험에 있는 재일한인의 다수가 공감하는 정보소스가 구역소와 같이 거주 지역에 위치하는 주류 사회의 공공기관이나 시설이었다.²⁵⁾ 그러나 안타깝게도 설문응답자의 약 33%는 그러한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심지어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용해본 적이 없는' 한인이 설문응답자의 10%가 넘는 정도로 이용의 적극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들이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정보소스로서 활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비스 시간이 맞지 않거나' 혹은 '위치가 너무 멀어서' 등 다양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한인이 그러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해 보지도 않고 '제공하는 정보가 부실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였다.²⁶⁾ 그들 스스로 밝혔듯이 일상적 정보의 추구에 있어 그러한 소극적 행태가 그

23) "일상적 대소사에 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대중매체(49.4%), 인터넷(22.4%), 아는 사람(16.4%), 기관단체(11%) 등. 한편, 대중매체가 가장 중요한 일상적 정보소스라고 응답한 한인의 절대 다수(약 84%)는 일본매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혹은 조선)의 대중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8.6%, 한인사회의 대중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7.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4) 구체적으로, 신문의 경우에는 정치와 사회면, 잡지의 경우에는 취미 관련 내용, 그리고 TV의 경우에는 뉴스와 드라마 그리고 영화와 같은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5) 응답자의 67%(532명중에서 356명)는 거주 지역에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 일상적 대소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서 85%(356명 중에서 301명)는 실제로 그런 기관으로부터 정보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시설로부터 정보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301명 중에서 절대 다수인 93.7%가 그들이 제공받은 정보서비스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대답을 하였다.

26) 지역의 공공기관과 시설을 일상적 정보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질문에 대한 설문참가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20.9%), 제공하는 정보가 부실해서(20.1%), 번거롭고 귀찮아서(19.7%), 위치가 너무 멀어서(12.6%), 직원이 친절하지 않아서(7.5%), 그리고 기타(19.2%) 등으로 나타났다.

들을 정보의 빈곤 상태로 몰아넣는 일차적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다.

특히, 정보소스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류 사회의 정보소스조차 멀리하는 안타까운 행태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²⁷⁾ 그러한 모습은 일상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공 영역의 정보소스라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일한인의 인식과 이용행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²⁸⁾ 설문조사의 결과, 공공도서관을 '방문해 본 적이 전혀 없는' 한인이 설문응답자의 약 67%에 이르렀으며, '1달에 1회 미만으로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약 20%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한인이 전체의 87%를 넘어설 정도로 공공도서관은 재일한인의 일상에서 정보소스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였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한인의 약 64%가 '이용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혹은 '활용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들은 실제로 방문해 보지도 않고 모국 사회에서 형성된 선입견이나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편견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을 '오래된 책이나 빌려 주는 곳'으로 인식하면서 활용을 기피하는 행태를 보였다.²⁹⁾

4.2 외적 측면: 열악한 정보환경

'노력의 부족' 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응답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정보환경이 열악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일상적 정보의 빈곤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에 참가한 한인의 약 1/3이 '열악한 정보환경'을 '일상적 정보빈곤'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정보환경은 무

27) 주류 사회의 주요한 정보소스에 대한 주변 집단의 이러한 편견과 불신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기피 현상은 소수민족 집단의 정보행태에서 자주 목도되는 현상이다.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5개 소수민족 집단(아메리칸 인디언, 히스패닉, 한국인,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그들 집단의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한 Metoyer-Duran의 연구결과에서도 주류 사회의 정보소스에 대한 소수민족 구성원의 편견과 기피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Metoyer-Duran은 소수민족 집단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효과를 증진하려면 소수민족 집단 내부의 정보소스(inside information sources)를 발굴하여 활용할 것과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을 주류 사회와 소수민족 집단 사이의 정보교류에 있어 게이트키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Metoyer-Duran, C. 1993. *Gatekeepers in Ethnolinguistic Communities*. Norwood, NJ : Ablex.

28) 가령, 우리 연구팀이 방문하였던 오사카와 동경의 한인 밀집 거주지역에는 적지 않은 규모의 한국어 도서와 잡지 그리고 신문 등을 구비하고 지역 거주 한인을 위해 각종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이 위치해 있었다. 동경의 〈東京市立新大久保圖書館〉과 오사카의 〈大阪市立生野圖書館〉은 한인 거주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이었다. 그러나 막상 이들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일한인의 이용률은 매우 낮아서 애써 예산을 확보하여 구비해 놓은 각종 한국어 자료가 무색해 보였다. 각 도서관의 분관장을 비롯한 사서들은 한인의 이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홍보 등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다.

29) 특히 재유연한이 짧은 뉴커머들과 60대 이상 올드커머 집단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흥미롭게도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대답을 한 사람들 중에서 면담조사에 참가했던 8명에게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열람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참고봉사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 등을 보여주었더니 '그런 서비스도 하느냐며 몹시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도서관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편견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보지도 않고 '필요 없는 곳'으로 멀리하는 행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상태를 지칭하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이번에는 다음의 질문을 설문참가자에게 던져보았다: *일본사회와 비교할 때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은 전반적으로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참가자의 반응은 명료하였다. 과반수가 넘는 55%에 이르는 응답자가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이 일본 주류 사회의 정보환경에 비해 열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³⁰⁾ 그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연한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2세 이상보다는 1세 사이에서, 일본의 주류 사회에 비해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거세게 표출되었다. 여기서 우리 연구팀이 특히 주목한 사실은 정보환경에 대해 '강하게'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대부분이 동경이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한인타운'에 거주하면서 그러한 한인타운 내에서 경제적 욕구뿐만 아니라 교육, 종교, 사회, 그리고 문화적 욕구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충족하면서 살아온 철저한 '주변화'된 한인들이라는 점이었다.³¹⁾ 이처럼 "정보빈곤의 일차적 원인이 정보환경의 열악함에 있다" 응답한 한인들은 "일상생활의 중심지로서 한인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정보환경이 일본인 커뮤니티의 정보환경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듯 열악한 정보환경으로 인해 그들이 정보의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3 열악한 정보환경의 속내

그렇다면 재일한인이 말하는 '열악한 정보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재일한인이 선호하는 일상적 정보소스'에 관한 데이터에 다시 주목해 보자. 지지하다시피 대다수의 재일한인이 일상적 대소사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스는 신문과 잡지 그리고 TV와 같은 대중매체였다. 그리고 그러한 대중매체는 일본 주류 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³²⁾ 그러나 우리가 파악했던 재일한인이 안고 있는 일상적 대소사의 많은 부분(즉, 취업과 사업, 육아 및 교육, 건강과 안전, 노후의 복지 등)은 그들이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주변인(즉, 소수민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민이었다. 즉, 주류 사회의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관련 정보를 얻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소위 '주변사회형 문제'가 일상적 고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 "일본사회에 비교할 때 교포사회의 정보환경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5.2%가 '낮다', 38%가 '비슷하다', 그리고 단지 6.8%만이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31) 오사카의 쓰루하시나 동경의 신오쿠보처럼 일본의 대도시에는 한인상가를 비롯해 다양한 한인단체나 기관이 몰려있어 소위 '한인타운'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재일한인사회의 물리적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특히 쓰루하시와 같은 지역은 일제시대 때부터 한인의 집단 거주 지역이었는데, 많은 올드커머가 그곳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생업을 찾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그 아이들을 기르며 지금도 살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하면 대부분이 그 지역을 떠나갔지만 ...

32) 각주(16) 참조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주류 사회의 대중매체가 재일한인의 일상사에 얼마나 유용한 소스가 될 수 있는지는 커다란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³³⁾

여기서 잠시 비록 응답자의 비율은 지극히 작았지만 재일한인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대중매체를 가장 중요한 일상적 정보소스라고 응답한 일단의 한인들에게 주목해보자.³⁴⁾ 우리 연구팀은 거주기간이 오래된 40대 이상의 장노년층, 특히 '특별영주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올드커머 집단에서 재일한인사회의 자생적 대중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였다. 그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연구팀은 그들이 재일한인사회의 크고 작은 소식이나 재일한인의 동향에 대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요구를 교포신문을 비롯한 한인 대중매체를 통해 일부나마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한인 대중매체의 대부분이 규모나 재정에 있어 영세하다보니 재일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기능이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재일한인사회에 관한 정보에 대해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렇듯 재일한인사회의 자체적인 정보유통기능, 특

히, 한인 대중매체의 빈약한 실정을 지목하면서 그들은 '정보환경의 열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어, 재일한인이 일상적 정보소스로서 선호하는 '기관과 단체'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열악한 정보환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지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532명의 한인 중에서 '일상적 대소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관이나 단체를 제일 먼저 찾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57명으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설문응답자 중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록 작았지만 그들 무리는 인구학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즉, 연령에 있어서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직업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들이, 그리고 거주연한이 최소한 50년 이상 된 올드커머가 그들 무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 연구팀이 특히 주목한 것은 그들이 일상적 정보소스로서 가장 선호한다는 기관이나 단체의 정체성과 성격이었다. 흥미롭게도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57명 중에서 34명)은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그들이 스스로 설립해 놓은 한인기관이나 단체들이었는데,³⁵⁾ 거기에는 민단이나 조총련을 비롯하여 여러 경제단체, 교육기관(단체), 종교기관(단

33) 이러한 의문의 일단은,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일본 대중매체에서 재일한인이 주로 관심을 갖는 내용이 정치와 사회 관련 기사나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되어진다. 특히 재일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참정권이나 외국인등록 문제와 같이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주류 사회의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34) 전체 설문참가자의 3.8%, 특히, '가장 중요한 정보소스로 대중매체를 선택한 응답자'의 7.8%에 불과할 정도로 응답자의 비율이 작았다.

35) 이에 비해, 일본사회의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일상적 정보소스로서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약 28%(57명 중에서 16명)였으며, 영사관이나 문화원과 같은 모국사회의 기관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약 12%(57명 중에서 7명)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하였지만 재일한인 특히 1세 중심의 노인층이 안고 있는 일상적 고민의 대부분이 '주변사회형' 문제라는 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인사회의 단체나 기관을 찾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는 것이다.

체), 인권단체, 그리고 복지단체 등이 망라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한인기관이나 단체들이 재일한인이 원하는 수준의 일상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었다.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재정이 열악한데다 일손까지 부족하다보니 자신들이 담당하고자 하는 업무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³⁶⁾ 그러한 상황에서 재일한인의 일상적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이고 수준 또한 낮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그들 기관이나 단체를 찾았던 한인의 대부분은 실망과 함께 돌아서고 결국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었다.³⁷⁾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오래 동안 반복되다 보니 한인기관과 단체의 설립이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인들로부터 '그들의 일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인식되어 되어버린 것이

다. 이렇듯 재일한인이 이야기하는 '열악한 정보환경'에는 한인기관이나 단체의 빈약한 정보유통능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실정은 재일한인이 일상적 정보소스로 선호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실체를 파악해 보는 작업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재일한인이 일상적 정보소스로 가장 선호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일본 주류사회의 사이트(응답자의 60%)였으며 모국의 인터넷 사이트(약 33%)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³⁸⁾ 이에 비해 재일한인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대부분이 재일한인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³⁹⁾ 재일한인사회의 대표적 인터넷 사이트들이 일상적 정보소스로서 재일한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와 관련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한인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불과하다보니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도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홍보성 기사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지사항 등으로 채워져 있어,⁴⁰⁾ 일상적 정보시스템으로서의

36) 게다가 재정이나 인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상태에 있는 민단이나 총련과 같은 단체들은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이슈에 집착하거나 간부 중심의 '가진 자들'을 위한 친목과 교류에 치중하는 등 재일한인이 지니고 있는 일상적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한 상태에 있었다. 흥미롭게도 재일한인에 대한 면담조사와 한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우리 연구팀은 민단에 비해 총련이 재일한인의 일상에 보다 밀접하게 다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족학교의 운영을 통해 재일한인의 민족 정체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온 총련은 취업이나 결혼 등 재일한인의 일상적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가령, 총련 산하의〈동포결혼상담중앙센터〉,〈동포취업정보센터〉,〈동포법률상담소〉 등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온 대표적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재일한인의 집중 거주지역마다 지부를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불어 닥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자에 이르러 그 활동의 영역과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태에 있다.

37) 심지어는 그러한 한인기관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한인 중에서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정보소스를 찾아나서는 실태를 면담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38)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 중요한 일상적 정보소스로 꼽은 대상은 합법체류자를 중심으로 하는 뉴커머 집단이었다(그들의 83%가 모국사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합법체류자에 더해 영주권자나 정주권자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 중요한 일상적 정보소스로 선택한 뉴커머의 약 30%도 모국사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일 선호하였다. 그들은 인터넷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모국의 정보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었고, 특히, 건강과 자녀교육 등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재일한인사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 중요한 일상적 정보소스로 선택한 한인은 6%에 불과하였다.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인들이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못하다보니 대부분의 한인들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사이트로 인식되는 것이었다. 결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사회나 모국사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요구를 해소해 본 경험이 있는 재일한인들에게 한인 사회의 인터넷 환경은 너무도 열악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환경의 열악함은 콘텐츠의 부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컴퓨터나 통신망과 같은 정보인프라 자체의 '열악함'과 그러한 정보기기의 활용과 관련된 능력의 '열악함'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었다. 가령,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재일한인의 컴퓨터 사용 비율은 약 73%로 나타나 재일한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절대적 빈곤층의 존재를 고려할 때 그렇게 '열악한' 상태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재일한인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에 이르러서는 '열악함'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약 47%의 한인 가정만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인 가정의 평균 보유율(78%)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격차를 더욱 실감나게 한 것은 컴퓨터의 미사용자로 파악된 한인들이 스스로 밝힌 '사용하지 않는 이유'였다. 미사용자 중에서 무려 42%에 이르는 한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은 인터넷의 경우도 크

게 다르지 않아서 미사용자의 약 38%가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인터넷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⁴¹⁾ 이렇듯 정보기기의 미비에 더해져서 정보기기 활용능력의 미비, 나아가 정보기기의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환경의 미비 또한 재일한인이 지목하는 '열악한 정보환경'에 포함되어 있었다.

5. 재일한인의 '잡' 정보화를 위한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재일한인의 정보빈곤은 그들의 일상에 실재하며, 그러한 정보의 빈곤은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여러 변인에 의해 다양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일본사회의 주변부에 놓인 재일한인사회의 정보빈곤은 구조적인 양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재일한인 사회 내부의 상대적 정보빈곤층의 생성과 확산은 재일한인사회의 정보빈곤을 만성적인 상태로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우리는 재일한인의 정보빈곤은 '정보마인드의 결여'와 '정보환경의 취약'이라는 두개의 허약한 뿌리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뿌리를 감싸고 있는 토양의 한계, 즉, 소수민족집단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겪어야 하는 정치경제적 빈곤과 사회문화적 소외가 재일한인의 정보마인드를 허약하게 만들고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데 근본적인 배경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⁴²⁾ 이제 논의를 마무리하

40) 콘텐츠에 대한 세밀한 분석결과, 재일한인사회에 관한 문헌이나 통계 자료를 파일의 형태로 수록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으나 수록 데이터의 최신성과 신뢰성 등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41) 설문조사에 참가한 532명의 재일한인 중에서 약 69%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서 우리 연구팀의 관심은 “재일한인을 정보의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로 귀결된다.

이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일한인의 삶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보복지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안을 재일한인을 철저히 타자화하고 주변화 하는데 기여(?)해온 양대 주체(즉, 우리 사회와 일본 사회)에 공통적으로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사실 이 글에 앞서 발표한 일련의 논문을 통해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을 활성화하고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가령, 재일한인의 일상에 밀접해 있는 ‘작지만 활동적인’ 한인기관이나 단체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정보유통기능을 강화하는 문제에서부터 그들 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재일한인의 일상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생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거시적 관점은 지양하고 조금은 소박하게 재일한인 내부에 존재하는 소외된 ‘주변’의 삶에 눈높이를 맞추고자 한다. 그래서 그러한 소외 집단의 정보복지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작지만 실천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 연구팀의 가슴에는 미찌꼬의 물

기어린 표정이 진하게 남아있다. 그녀의 면담 과정에서 기본적인 문자이해력조차 갖추지 못한 그녀를 위해 우리는 모국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소설을 읽어주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눈동자가 열리고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궁금해 하던 세상 이야기를 한 자락 접하고 나서 한없이 즐거워하던 그녀의 모습은 지금 수천 명의 미찌꼬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비록 늦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배우기를 원하고 있었다. 어찌 글뿐이겠는가? 컴퓨터를 앞에 놓고 호기심을 보이던 그들의 모습. 글을 모르니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지만 컴퓨터에 등장하는 세상 이야기는 그들의 지적 욕구를 충분히 자극하였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도 배우고 싶어 하였다. 그것을 배우고 나서 ‘운이 좋아’ 그 물건을 한 대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집에만 들여놓고 싶다는 이들도 많았다. 외로움을 달랠 친구 삼아서... 그러나 그것은 욕심이라 했다. 지금은 글을 배울 수 있는 ‘선생님’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고 했다.

한편, 뉴커머 황문식의 고충을 해결해 줄 길은 간단치 않다.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 그가 참조할 만한 관련 자료를 찾아주는 일이야 어찌하다 보면 가능하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의 마음과 행태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주류사회

42) 물론 재일한인의 다수가 정보마인드를 결여하고 있고 그들을 둘러싼 정보환경이 주류 사회인 일본인 사회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일본사회에서 ‘유일한’ 소수민족집단으로 존재하는 재일한인의 정치경제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스스로 ‘빈곤’에 처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빈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이주자 집단 특히 비자발적 이주민으로 구성된 소수민족집단의 속성과 행태’에 관한 인류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치밀한 연구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일단 접어두고 여기서는 “재일한인을 일상적 정보의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데 무게를 두고자 한다.

는 물론이고 올드커머 집단 그리고 심지어 그가 속해 있는 뉴커머 집단에서도 마음을 열어 놓고 고민을 나눌 상대가 그에게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소스를 찾고자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물론 생각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스를 찾아가는 절차와 방법도 모르는데, 특히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확신할 수도 없는데,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어찌 할거냐! 그의 의식과 몸에 배어있는 정보행태의 소극성은 극복하기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하나!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 그와 같은 고민을 가졌던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멋지게(?) 해결한 경험이 있는 뉴커머가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만나볼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다. 그가 한 인사회는 물론이고 일본사회의 정보소스에 정통하다면 금상첨화이고...

이처럼 지금 미찌코와 황문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 기본적인 문자교육과 정보교육을 담당할 사람, 특히, 일본사회와 모국사회 그리고 한인사회의 정보문화와 시스템에 익숙하면서 정보빈곤 집단의 지식화와 정보화를 위한 열의로 가득찬 '정보 전문 인력'이 그들에게는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력을 가능하다면 그들과 친숙한 내부 집단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다. 그러고 보면 김청자의 고민 역시 결국 사람과 관련되어 진다. 그녀는 '생각은 있지만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생산하여 유통시키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시스템'도 갖추고 싶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 특히, 한인단체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 단체들과도 연계하고, 또한 지역의 I&R 센터나 공공도서관 등과도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갖추었으면 하는데, 그러한 작업을 담당할 만한 전문 인력이 주변에 없다. 이러한 김청자의 고민, 그리고 앞서의 미찌코와 황문식의 고민은 이처럼 모두 정보교육과 정보관리 그리고 정보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결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우리의 결론은 명료해진다. 재일한인, 특히, 정보빈곤층을 대상으로 정보교육과 정보서비스를 전담할 전문 인력을 재일한인사회가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의 책임 있는 주체(정부가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도와주자는 것이다. 지원을 위한 방법이야 다양하다. 재일한인사회에 관련 교육기관이나 시설을 설립하는 것에서부터 정보복지에 관심을 가진 재일한인을 정기적으로 선발하여 한국이나 일본의 정보관련 교육기관에 보내어 위탁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중장기적인 접근이어서 당장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자질과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전문 인력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한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현지에도 이미 정보복지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전문 인력이 실재하지만, 그러한 인력을 발굴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족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와 일본의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은 물론이고 재

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재
일한인의 진정한 '정보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⁴³⁾

참 고 문 헌

- 신숙옥. 2000. 『재일조선인의 가슴속』. 서울: 십
년후.
-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73-295.
- 이제환, 정수원, 송정숙. 2004. 일상적 고민을 통해
본 재일한인의 삶. 『한국민족문화』, 23:
149-186.
- 이제환, 장덕현, 이연옥. 2004. 在日韓人の 일상
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關西지역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22-248.
- 이제환. 2005. 동경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오사카지역 한인과의 차이를 중심
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91-116.
- 이제환, 노지현. 2005.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
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45-76.
- 한일민족문제학회 편. 2003. 『재일조선인, 그들
은 누구인가?』. 서울: 삼인.
- 최협 외 편. 2004.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 姜尙中. 2004. 『在日』. 講談社.
- 姜在彦·金東勳. 2003. 『在日 韓國·朝鮮人-
歴史と展望』. 昭和.
- 関寛植. 1994. 『在日韓國人の現状と未來』. 百
帝社.
- 朴鐵民 編. 2004. 『在日を生きる 思想』. 東方
出版.
- 福岡安則. 1993. 『在日韓國·朝鮮人: 若い世
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公新書.
- 福岡安則·金明秀. 1997. 『在日韓國人青年の
生活と意識』. 東京大學出版會.
- Chatman, E. 1995. "Information, Mass Media
Use and the Working Po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7: 97-113.

43) 後記: 이 글에서 논의한 소외 집단의 '정보빈곤' 문제를 이제 우리 사회 내부로 깊숙이 끌어드리는 작업에 문헌정
보학을 전공하는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에는 주류 집단의 무관심
과 홀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변인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거리에서 흔히 마주치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고
아나 결손가정의 아동, 고령자, 실업자, 노숙자, 유흥업종사자 등과 같은 우리 내부의 소외 집단은 물론이고 우리
의 일원이 되고자 우리를 찾아온 북한이탈자,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를 찾아 이주
해온 외국인 여성과 그들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일원들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그들의 정보빈곤과 정보복지에 대해 우리 문헌정보학자들과 도서관인들이 관심과 애정
을 보이게 될 때 우리 사회의 건강성은 물론이고 우리 학문의 경쟁력과 현장의 사회성이 동시에 제고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 Chatman, E. 1996. "The Impoverished Life-World of Outsid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7: 193-206.
- Childers, T. 1975. *The Information-poor in America*. Metuchen, NJ: Scarecrow.
- Davenport, T. 1997. *Information ecology : Mastering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Environmen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Metoyer-Duran, C. 1993. *Gatekeepers in Ethnolinguistic Communities*. Norwood, NJ : Ablex.
- Schiller, H. 1996. *Information Inequality*. New York: Routledge.
- Wresch, W. 1996. *Disconnected: Haves and Have-nots in the information ag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